

Henkel, 박물관에서 접착제 체험행사



Henkel이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리는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전시관 입구에 특별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록타이트와 함께하는 황금 피라미드 저금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한다.

록타이트와 함께하는 피라미드 저금통 만들기 행사는 귀중한 세계문화유산 복원에 Henkel의 접착제가 널리 활용되는 점에 착안해 기획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Henkel의 록타이트 접착제는 고무, 나무재질에서만 접착력을 발휘하는 기존 접착제와 달리 종이, 금속, 세라믹, 도자기까지 다양한 재질을 짧은 시간동안 단단하게 결합시켜 금속이나 도자기가 주를 이루는 각종 유물의 원형 복원에 사용되고 있다.

체험행사는 전시관 입구 행사부스에 마련돼 있으며, 참여자들은 진행요원의 안내와 함께 순간접착제인 록타이트 슈퍼 글루와 만들기 재료를 수령한 후 참가할 수 있다.

황금 피라미드 저금통 만들기 행사는 8월14일-16일과 8월22일-23일, 총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8/12>